

# 병리학적 관점에서 본 平胃散의 소고

이광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 Elucidation of Pyeongwi-san from the Pathological Point of View

Kwang Gyu Lee\*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was focused on a certain clinical symptom, which could be applied by Pyeongwi-san, and the radical treatment. Pyeongwi-san is applicable to dampness retention in the spleen and stomach, accompanied by abdominal fullness, anorexia, nausea and regurgitation. Main action of Pyeongwi-san is to dry dampness, invigorate the spleen, promote the flow of gi, and regulate the stomach. The herbal remedy drying dampness like Pyeongwi-san however, is just *indicatio symptomatica* therefore radical treatment must be used together. Jeunginmaegchi, a medical book written by Gyeong-Myeong Jin, who was lived in Myeong dynasty. This book contains many clinical applicable symptoms and constituents derived from Pyeongwi-san. The herbal prescriptions composing Pyeongwi-san is composed of Changchul, Hubak, Jinpi, Gamcho. The major action of these herbs is drying dampness. Therefore, i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hat curative therapy must eliminate the cause of endogenous dampness.

Key words : endogenous dampness(內濕), Pyeongwi-san(平胃散)

### 서론

오늘날 임상가에서 飲食傷으로 인한 胃腸疾患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처방 중에 하나가 平胃散이나 혹은 平胃散을 本方으로 해서 몇몇 약물을 가감한 平胃散類方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燥濕한 藥物로 구성된 平胃散의 效能이 脘腹滿悶、宿食不消、不思飲食、口淡乏味、嘔逆惡心、大便溏泄、身體倦怠嗜臥、苔白厚而粘膩라 하여<sup>1)</sup>, 輕則痞悶不舒、不思飲食; 重則脹滿疼痛、惡聞食臭、噎腐吞酸、惡心嘔吐、泄瀉穢臭 등의 飲食傷證과 매우 유사하게 보여<sup>2)</sup>, 함께 混用되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醫師들은 平胃散을 健脾劑로 常服시키기도 하는데 “常服健脾之劑、動輒用之、而不察可否、其誤甚矣”라 하여 과용함에 대한 우려를 기술하였다<sup>3)</sup>.

混用되어 사용된 飲食傷의 一般的인 治法은 消積導滯法으로 山查、神曲、麥芽、蘿菔子 등이 主藥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sup>2,4)</sup>. 그러나 平胃散은 燥濕健脾한 效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濕을 중심으로 한 諸病證 특히 中焦濕滯證<sup>1)</sup>、燥濕健脾、和胃降逆<sup>5)</sup>、燥

濕健脾、行氣和胃<sup>6)</sup> 등의 證에 사용되는 중요한 處方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食生活의 변화에 따라 飲食傷의 原因도 다양해지므로 臨床을 통해 平胃散證을 飲食傷과 연계하여 응용되고 있다. 飲食傷 이외에도 潮濕한 기후지역에서 山嵐瘴霧에 감수되었거나 水土不服, 혹은 두통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7)</sup>.

内生濕과 脾의 機能失調와는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sup>8-10)</sup>. 특히 脾의 運化 升清 등의 機能 중 어느 機能이 失調되어 水濕이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運輸機能失調로 인한 水濕은 困重感과 浮腫위주로 食欲不振、脘痞腹脹、嘔惡便溏、肢體痠軟重痛이<sup>11)</sup>, 升清機能失調로 인한 水濕은 困重感이 있되 下垂感和 痞吐泄瀉 爲主의 症狀<sup>12)</sup>이 나타나되 겸하여 淸者が 營養物質의 原料가 되는데, 이것이 原料로서 作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虛證(營養失調)과 함께 兼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治法에 있어서도 運輸機能失調로 인한 水濕과 升清機能失調로 인한 水濕은 제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東垣은 “升清機能失調에 의한 水濕은 升陽除濕湯을 사용해야 된다”<sup>13)</sup>고 밝히 運化機能失調로 인한 證候를 치료할 방법을 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運化機能失調로 生成된 水濕이나 水飲 혹은 濕痰을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 平胃散 五苓散 혹은 二陳湯이 아닌가 사료된다.

\* 교신저자 : 이광규,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l@woosuk.ac.kr, · Tel : 063-290-1562

· 접수 : 2011/09/21 · 수정 : 2011/10/10 · 채택 : 2011/10/11

祛濕法에 있어서도 外因性 水濕이나 혹은 內因性 水濕인가에 따라 다르고, 또 外因性이라 해도 水濕單獨이나 혹은 다른 邪氣와 相兼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內因性은 더욱 津液代謝에 관여하는 臟腑의 機能狀態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治法을 사용해야 하고, 外因과 內因이 相傳하면 더욱 복잡한 형태의 治法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렇기 때문에 內生濕證을 治療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용되는 것으로는 대체로 芳香化濁, 苦味燥濕, 淡滲利濕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芳香化濁法은 體表의 濕邪를 제거하는데 주로 응용하고, 苦味燥濕法은 주로 中焦의 濕證에 응용되나 이것은 다시 病性에 따라 苦溫燥濕法과 苦寒燥濕法으로 분류하고, 苦溫燥濕法은 中焦寒濕證에, 苦寒燥濕法은 濕熱內蘊證에 응용되어 사용하고, 淡滲利濕法은 발생한 水濕이 주로 下部에 존재할 때 水濕을 小便을 통해 體外로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자가 호소하는 症狀을 근거로 病因과 病性 病位 등 發生機轉을 잘 살펴서 각각에 맞는 올바른 치료방법을 세우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전제조건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苦溫燥濕法은 中焦寒濕證에 응용되며 여기에 대표적으로 응용되는 處方이 平胃散이다. 그러므로 平胃散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정확한 使用適應證과 그것을 祖方으로 한 加減方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분 론

平胃散의 主治症의 發生機轉은 中焦濕滯證, 燥濕健脾, 和胃降逆, 燥濕健脾, 行氣和胃 등 이라 하여 濕과 脾虛의 관계를 중요하게 言及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脾虛와 生濕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平胃散의 主治症도 이해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6,8,9)</sup>.

津液의 輸布過程 중에 失調現狀이 나타나면 津液이 非正常的인 液性物質인 水濕이나 水飲으로 변하게 된다<sup>15,16)</sup>.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면 正常的인 水液의 運輸過程에 나쁜 영향을 끼쳐 水液代謝에 障礙를 발생시켜 水濕이 發生되고<sup>17-19)</sup>, 脾의 升清機能이 不足하여 清陽이 上竅로 가지 못하게 되면 水濕이나 濕濁이 발생되고, 이것이 下陷에 의해 下注하게 되어 陰囊潮濕이나 泄瀉 등 下部疾患이 나타나게 된다<sup>20,21)</sup>. 이런 이유로 어느 機能에 失調가 發生했는지에 따라 水濕의 發生部位가 多樣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脾의 機能 중 어느 機能이 失調되어 水濕이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泄瀉 등 運輸機能失調로 인한 水濕은 困重感和 浮腫 위주로 食欲不振, 脘痞腹脹, 嘔惡便溏, 肢體痠軟重痛<sup>11)</sup>, 升清機能失調로 인한 水濕은 困重감이 있되 下垂感和 痞, 吐, 泄瀉 위주의 症狀 뿐만 아니라<sup>12)</sup> 清者가 營養物質의 原料가 되는데, 이것이 原料로서 作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虛證(營養失調)도 심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內濕의 발생에 크기는 脾臟이 관여하고, 脾臟의 機能중에서도 특히 運化와 升清이 주로 관계됨을 밝히고 있다.

이 運化와 升清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溫性계통의 藥性이 필요하다. 또 이미 발생된 濕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남아있다. 祛濕法에서 水濕의 位置에 따라 제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다. 邢과 王 등은 濕邪偏上, 主以辛散芳化; 濕邪偏中, 主以燥濕健運; 濕邪偏下, 主以淡滲分利라 하였고 특히 邢은 “體表의 濕은 대부분 祛風勝濕해야 하니, 경미한 發汗을 통해 毛竅를 통해 빠져 나가게 하고, 胰理三焦의 濕은 淡滲利濕해야 하니 小便을 통해 濕을 빠져 나가게 하며, 水飲이 胸腹에 內停된 경우에는 마땅히 瀉下逐水해야 하므로 泄瀉라는 형태의 大便을 통해 배설되도록 한다.”라고 하여 水濕의 위치에 따라 치법과 出路를 설명하였다<sup>22,23)</sup>.

이 원칙에 의거하여 中焦에 濕邪가 偏重되어 있으면 燥濕健運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五味의 效能에 의하면 苦味が 燥를 제거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므로<sup>24)</sup>, 苦味를 선택되 溫性을 가지고 歸經이 脾인 藥物을 君藥으로 선택하면 內濕의 發生機轉에 부합되는 합당한 약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濕邪의 特徵중 하나가 重濁粘膩하여 쉽게 氣機를 阻滯시켜 氣의 움직임을 遲滯나 停滯시킬 뿐 만 아니라 運化機能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祛濕劑에는 항상 理氣藥을 배합해야 濕역시 化水하여 運行하게 시키고<sup>14)</sup>, 혹은 “通可去滯”라 하여 理氣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濕邪가 脾를 困倦하게 하면 脾의 運化와 升清이 失調될 뿐만 아니라 氣機가 阻滯되어 胸脘痞悶, 便溏不爽, 身重困倦, 怠惰嗜臥, 頭重如裹 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胃의 受納과 腐熟機能을 초래하여 泛惡欲嘔, 口中粘膩, 不思飲食, 噯氣吞酸, 苔白膩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즉 外部的 濕邪가 脾胃에 停滯하여 脾胃濕困證을 발생시켜 야기된 症狀에 사용되는 치법이 바로 燥濕和中法이다. 이것은 外部에서 侵入된 濕으로 인해 濕이 과다하게 偏盛되어 均衡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均衡을 맞추기 위서는 偏盛된 濕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胃라는 의미는 偏盛된 濕을 제거하기 위해 苦溫한 藥性和 辛香한 藥性を 응용하여 燥濕健脾와 和胃機能 및 理氣機能을 회복시켜 주는 올바른 治療방법인 것이다<sup>5)</sup>. 이러한 原理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治法 중에 燥濕化濕法이 있는데 이것은 濕邪를 宣化시키는 방법으로 苦溫한 性味로 燥濕化濁하는 藥物과 芳香性 醒脾利氣시키는 藥물을 배합하여 脾胃氣能을 회복시켜 津液과 氣을 소통시켜 치료하는 법이다. 주로 濕濁이 中焦를 阻滯시켜 발생된 證候에 사용된다고 하여 平胃散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sup>25)</sup>.

이밖에도 內濕이 있으면 쉽게 外濕도 침범하기가 쉽다. 外濕邪가 體表에 있을 때는 疏表祛濕法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濕邪와 相兼하는 邪氣에 따라 風濕이나 寒濕일 경우에는 辛溫芳香하는 藥을 위주로 祛濕하되 乾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發汗藥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疏表祛濕法은 濕熱邪가 體表에 침입한 初期거나 혹은 寒濕困遏肌表證에 많이 사용되는 치법이다<sup>26)</sup>.

平胃散은 中焦에 濕이 偏盛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濕邪의 發生機轉이 脾의 運化機能 失調로 발생된 內濕이 偏盛된 것에 사용하는지 혹은 脾胃內에 있는 濕邪가 脾胃의 機能을 失調시켜 發生한 病證에 사용하는 지에 대한 내

용이 불확실하다. 脾의 運化機能에는 水穀의 運化와 水濕의 運化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水濕의 運化에 대해 陳은 水液이 胃藏으로 들어오면 腸道를 통과하면서 흡수되어 비로소 기타 필요로 하는 臟腑나 여러 器官에 輸布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稟賦不足으로 인한 中焦의 陽虛나 或은 憑食生冷으로 脾陽이 損傷되는 등 여러 原因에 의해 口脛을 통해 入水된 水液이 輸布되지 못하면 水濕이 胃臟에 停滯되어 水濕痰飲 등의 네 가지 형태로 變形된다고 하였다<sup>27)</sup>. 李는 “濕은 陰邪로서 모이면 飲을 이루고, 結하면 痰이 되므로 치법은 마땅히 溫化시켜야 한다. 그러나 水濕의 蘊鬱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水濕의 蘊鬱이 오래되면 반드시 熱로 변화하므로 따뜻한 약을 오랫동안 과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熱로 변화하는 것을 삼가 예방해야 한다”고 하여<sup>5)</sup> 濕邪의 轉變性과 祛濕法의 運用方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형된 物質들이 脾胃에 있게 되면 飲食不振, 脘痞腹脹, 嘔惡便溏, 肢體疲軟重痛, 頭目眩暈, 苔白膩 등을 主證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은 寒濕困脾證에 속하며, 燥濕化濁하는 藥으로 이미 困脾된 脾陽을 振興시키고, 溫化粘膩濕濁하는 藥으로 濕濁을 解消시켜 脾의 效能을 恢復시켜 病을 회복되게 할 때 平胃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7)</sup>.

祛濕의 治法은 대부분은 標를 치료하는 것이므로 臟腑의 機能을 조절함으로써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sup>22)</sup>. 平胃散 역시 標를 치료하므로 이를 基本方으로 하는 많은 加減方들이 존재한다.

平胃散을 다양한 疾病에 다양하게 應用한 醫家로는 症因脈治를 저술한 明 秦景明이 있다<sup>28)</sup>. 秦은 그의 著書에서 平胃散의 응용을 頭痛, 口眼喎斜, 半身不遂, 胃脘痛, 嘔吐, 腹脹 등 外感 內傷의 다양한 질환에 두루 사용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표 1과 같다.

한편 段은 그의 著書에서 平胃散이란 名稱을 사용한 처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秦의 處方을 열거하였는데 香砂平胃散, 加減平胃散, 加味平胃散, 調氣平胃散, 去惡平胃散, 溫中平胃散, 防葛平胃散, 梔蓮平胃散, 柴葛平胃散, 葛花平胃散, 桔梗平胃散, 神朮平胃散, 香蘇平胃散, 香蓮平胃散, 參苓平胃散, 二陳平胃散, 平胃五苓散, 黃連平胃散, 平胃保和湯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平胃散에서 변형된 處方으로 平胃散이란 名稱을 사용하지 않은 처방으로 對金飲子, 不換金正氣散, 茯苓半夏湯, 人參養胃湯, 二朮煎, 蒼朮除濕湯, 勝濕湯 등을 열거하였다<sup>29)</sup>.

또 李는 평소 脾虛胃寒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外寒을 感受하면 腹痛嘔吐, 脘痞腹脹, 寒熱腹瀉, 苔白厚膩 등證이 나타나는데, 이 때의 治法은 化濕解表, 和中止嘔이고, 處方은 平胃散에 藿香 半夏를 더한 藿香平胃散(又名不換金正氣散), 外感寒濕으로 발생한 頭痛, 嘔泄, 咳嗽, 胸悶, 脘腹脹滿, 苔白厚膩 등證에는 本方에 藁本 桔梗을 더한 和解散을, 飲食傷으로 宿食不消, 吞酸噯腐, 食欲不振, 脘痞苔膩證이 나타나면 消食化滯하는 治法을 사용해야 하므로 本方에 炒新曲 炒麥芽를 더한 加味平胃散을, 中焦濕熱積滯之證에는 燥濕清熱해야되므로 本方에 黃連 木香을 더한 黃連平胃散을, 飲食傷胃하여 食滯濕阻한 證에는 燥濕和胃, 行氣導滯해야 하므로 本方에서 厚朴을 빼고 枳實 木香 藿

香 香附子 砂仁을 더한 香砂平胃散을, 中焦寒濕으로 발생한 脘脹嘔泄證에는 溫中化濕시켜야 되므로 本方에서 蒼朮을 빼고 乾薑을 더한 和胃飲을, 和胃飲에서 半夏를 더한 溫中散, 脾胃水濕으로 腹脹身重, 不思飲食, 四肢痠重, 皮膚腫脹 등證이 나타나면 燥濕行水시켜야 되므로 本方에 桑白皮를 더한 對金飲子를, 飲食停滯로 脘脹吐泄, 小便不利, 身體浮腫 등證이 나타나면 健脾利濕시켜야 되므로 本方에 五苓散을 합한 胃苓湯을 사용한다고 하여 平胃散을 母方으로 한 수많은 加減方을 소개하였다<sup>5)</sup>.

표 1. 症因脈治에 기록된 平胃散의 응용처방들

처방명	主治症	처방구성
葛花平胃散	酒濕成癱者	平胃散 加 葛花
梔蓮平胃散	口眼喎斜之脈右關弦數者	平胃散 加 山梔子 黃連 葛根 木瓜 秦朮
	內傷胃火嘔吐	平胃散 加 山梔子 黃連
	內傷食積嘔吐	
	食積泄瀉	
平胃保和湯	酒積腹痛	平胃散 加 山梔子 黃連 枳殼 桔梗
	內傷頭痛中食積頭痛	平胃散 加 山查 神曲 麥芽 蘿藦子 連翹
神朮平胃散	外感胃脘熱之痛	平胃散 加 知母 石膏
二陳平胃散	食積咳嗽, 胸滿悶脈沈滑者	平胃散 加 半夏 茯苓
	內傷痰飲痰軟證	
枳桔平胃散	食滯中宮 內傷呃逆 氣結腹脹胸前飽悶	平胃散 加 枳實 桔梗
蒼朮平胃散	食滯中宮 內傷呃逆	平胃散 加 蒼朮 厚朴
防葛平胃散	風氣之外感嘔吐與胃風欲吐	平胃散 加 防風 葛根
香蘇平胃散	濕氣之外感嘔吐	平胃散 加 藿香 蘇葉
半夏平胃散	內傷嘔吐清水胸前飽悶	平胃散 加 半夏 茯苓
柴葛平胃散	內傷膽火入胃嘔苦吐酸 濕癰胸次不平者	平胃散 加 柴胡 乾葛 黃連 梔子
人參平胃散	肺虛氣壅腹脹	平胃散 加 人參
茵陳平胃散	穀疸	平胃散 加 茵陳 淡豆豉
荊防平胃散	外感之陽明經上部風濕痿證	平胃散 加 荊芥 防風
香砂平胃散	食積胃家成癰症	平胃散 加 香附子 砂仁
乾葛平胃散	胸滿寒濕痢	平胃散 加 乾葛
香蓮平胃散	疫痢	平胃散 加 木香 黃連
平胃六一散	外感中暑瀉	平胃散 加 滑石
枳朴平胃散	內傷食氣壅亂	平胃散 加 枳實 厚朴

## 고찰

역대 많은 醫家들이 平胃散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으나 本治의 개념을 갖춘 處方으로는 香砂養胃湯이 있다.

본 방은 四君子湯에서 白朮을 君藥으로 하고 人參을 佐藥으로 여기고 平胃散을 합방하여 脾胃의 健脾化濕을 하도록 함으로써 不思食, 痞悶 등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sup>30)</sup>. 이처럼 本治의 思考를 포함하고 있는 處方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즉 平胃散을 基本方으로 한 應用方은 다양하게 변화하여 用한 점이 보이나 內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제거하는 면은 보완하여 用한 점은 부족한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 平胃散은 續發性 發病因子인 濕을 제거하는 藥物로 구성된 用方이지 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제거하는 藥物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平胃散을 用할 때 內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제거하는 用법을 고려해야만 보다 用한 用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후세대 用인 濕病學에서 濕이나 濕熱에 대한 用法을 살펴보면 宣肺化濕에 대한 것을 강조

하여 宣肺나 肅降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化濕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杏仁이나 桔梗을 사용하는 처방이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기존에 濕이나 濕熱을 치료하는 처방에 이러한 약들이 添加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나 사료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內濕에 의해 발생된 많은 질환을 치료할 때 平胃散을 어떻게 응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려를 해야 될 것이다. 또 平胃散에서 平의 개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평형하게 한다는 의미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보다 많은 것을 덜어서 평형을 유지하게 한다는 개념이고, 脾의 運化 升清 등의 生理機能失調로 內濕이 非正常的으로 발생하여 생긴 여러 證候에 본 처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平胃보다는 平脾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平胃散은 續發性 發病因子인 濕를 제거하는 약물로 구성된 處方이지 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제거하는 약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平胃散을 응용할 때 內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제거하는 治療法을 가미하는 것을 고려해야 보다 완전한 治療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平胃散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平胃散은 續發性 發病因子인 濕를 除去하는 藥物로 구성된 處方이지 濕을 발생시킨 原因을 除去하는 藥物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中焦水濕을 발생시키는 原因을 치료하는 治法과 배합하여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脾氣虛에 의해 발생한 水濕이 多樣한 病理的 產物로 轉變될 수 있으므로 平胃散을 基本方으로서 다양한 處方으로 변화시켜 응용할 수 있다. 飲食傷에 平胃散을 응용하려면 寒濕한 生冷物이나 혹은 그런 형태의 飲食物에 의한 寒濕困脾形 飲食傷에 응용하면 좋다. 平胃散은 本治의 概念의 處方이 아니기 때문에 常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平胃散을 基本으로 해서 變形된 處方 중, 平胃散名稱을 사용한 處方으로 飲食傷平胃散 加減平胃散 加味平胃散 調氣平胃散 去惡平胃散 溫中平胃散 防葛平胃散 樞蓮平胃散 柴葛平胃散 葛花平胃散 平胃五苓散 桔梗平胃散 神朮平胃散 香蘇平胃散 香蓮平胃散 半苓平胃散 平胃二陳湯 藜苓平胃散 黃連平胃散 平胃保和湯 등이 있다.

平胃散을 基本으로 해서 變形된 處方 중, 平胃散名稱을 사용하지 않은 處方으로는 對金飮子 不換金正氣散 茯苓半夏湯 厚朴湯 和解散 和胃飲 香砂養胃湯 理脾湯 除濕湯 人蔘養胃湯 二朮煎 蒼朮除濕湯 勝濕湯 藿香正氣散 溫中散 등이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1. 焦樹德. 方劑心得十講 人民衛生出版社, p 167, 1998.
2.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44-247, 1995.
3. 孫世發. 名方配伍分析及應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549, 2002.
4. 楊醫業. 中醫學問答.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 654, 1985.
5. 李慶業. 臨床常用方藥應用鑑別方劑分冊, 人民衛生出版社, p 443, 2003.
6. 楊醫業. 中醫學問答.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 657, 1985
7. 焦樹德. 方劑心得十講 人民衛生出版社, p 1682, 1998.
8.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57, 1995.
9. 謝文光. 中醫配方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 107, 2000.
10. 정한솔, 하기태, 신상우, 이광규. 脾氣虛로 인한 內濕의 발생과 四君子湯. 東醫生理病理學會誌 24(6):903-906, 2010.
11.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56, 1995.
12.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87, 1995.
13. 李東垣.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서울 法人文化社, p 707.
14. 孫世發. 名方配伍分析及應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534, 2002.
15. 楊醫業. 中醫學問答.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 29, 1985.
16. 柳道坤. 東醫生理學講義. 益山 圓光大學校出版局, pp 271-276, 1996.
17. 楊醫業. 中醫學問答.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 15, 1985.
18. 柳道坤. 東醫生理學講義. 益山 圓光大學校出版局, p 339, 1996.
19. 王 琦. 中醫臟象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76-377, 1997.
20. 柳道坤. 東醫生理學講義. 益山 圓光大學校出版局, p 342, 1996.
21.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67, 1995.
22. 邢玉瑞. 中醫方法全書.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p 442, 1997.
23. 王明輝. 中醫是怎樣治病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6, 1996.
24. 高曉山. 中藥藥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72, 1992.
25. 邢玉瑞. 中醫方法全書.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p 446, 1997.
26. 邢玉瑞. 中醫方法全書.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p 431, 1997.
27. 陳潮祖.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56-257, 1995.
28. 秦景明. 症因脈治. 臺北 旋風出版社, 1979.
29. 段苦寒. 中醫類方辭典. 天津 天津大學出版社, p 29, 1995.
30.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醫聖堂, p 295, 1998.